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정책 방향(안) 1회

쇠고기 수입개방 대응 한우정책 토론회(농협중앙회 성내동별관 '00. 9. 6)에서 특별 강연(강연자 : 농림부 축산국장 김주수)된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정책 방향(안)”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 게재코자 한다.

추진배경

WTO출범 이후 정부는 쇠고기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시설확충, 품질의 고급화, 유통체계의 현대화 및 품질차별화 등에 진력한 결과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이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축산업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한우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우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만한 사업추진의 주체가 적어 육성이 시급하며 축산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경쟁력향상 및 사육기반안정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때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한우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한우를 우리농업의 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한우산업 발전방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한우를 쌀과 함께 우리 농업을 대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축산의 육성을 기본목표로 삼는다. 기본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쇠고기 자급율은 35 ~ 40% 수준을 유지하며
- ② 한육우는 200 ~ 230만두정도의 적정두수 사육이 필요하다.
- ③ 한육우 가격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230 ~ 250만원/(500kg·두)으로 유지한다.
(환율 : 1,100 ~ 1,200원/\$)
- ④ 고급육인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을 23.8% (2000. 7.)에서 40%이상 향상시킨다.

1. 사육기반안정 및 자율발전토대 구축

쇠고기 완전수입개방 이후에도 쇠고기자급율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경영불안요인의 제거 및 안전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개별농가경영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형화되는 유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사육규모 및 경영형태에 따른 한우농가 특성화 유도

- 전업농가는 번식과 비육을 일관경영함으로써 밀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생산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소규모 번식농가는 송아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근의 전업비육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송아지의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경영 및 기술의 지도를 쉽게 지원 받도록 한다.

나.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으로 사육불안심리 해소

① 송아지생산안정세의 조기정착

○ 지역별 암소개량, 번식농가 관리 및 송아지 전자기래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며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우 중심으로 각종 정책사업 및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② 한우다산장려금제 지속추진

○ 암소사육기반확충을 위해 송아지를 3회이상 생산하는 암소에 대해 다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5산이상 생산시 : 20만원)

③ 자가인공수정기를 농가에 시범보급

○ 암소에 대해 적기의 인공수정으로 수태율을 높임으로써 번식비용의 절감과 안정된 송아지 생산을 유도한다.

④ 가축공제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및 대상확대

○ 공제로 납입액의 50%를 지원하고 공제대상 축종도 한우우와 젖소 이외에 돼지, 말운 추가 하였으며 6개월 미만의 송아지도 가축공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발전 토대 구축

①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별 「한우사업추진체」 육성

○ 지역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한우사육농가와 연계하여 암소등록, 인공수정 실시 및 우수 암소 선발·도태, 지역내 농가간 송아지판매 연계, 사양관리방법의 표준화 및 공농사료 이용 등, 고급육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토록 한다.

○ 한우농가 중 의욕과 지도력 있는 모범사육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농가관리의 중심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 한우조합전환, 한우계열화사업 실시조합에 대해 축협경제활성화 자금(400억)과 조합유통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방향전정과 발전계획 수립 및 각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조정을 담당하는「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생산자단체의 광역화 및 전국적 연합조직 구축을 통한 생산기반안정, 품질고급화 및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 제고

○ 지역조합간의 산업연합 등의 결성으로 「한우조합연합회」 또는 「한우사업연합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방안으로 축협연합회와 사업연합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과 자금배정 요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추진권한을 부여하고 축종별 자율사업협의회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한우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자율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협중앙회, 유통업계, 학계,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소상정협의회」를 통하여 중요한 축산현안을 공동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라. 조사료 등 부존자원 생산 및 활용기반 확충

① 국내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예작물,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동시에 초지조성비, 종자·비료대 및 근포 싸일레지 제조 등의 지원을 늘린다.

② 제주도를 한우송아지번식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번식우 입식비를 지